

ASIA PACKAGE DESIGN SANGHAI '99를 다녀와서

각 국별 고유칼라 중심, 독자적 이미지 구축 추세



하병현
디자인풀 대표

ASIA PACKAGE DESIGN은 아시아지역 민간 패키지디자인단체들의 모임으로써 '아시아는 한꾸러미'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일본, 중국(상하이), 대만 등에서 4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1993년 서울에서 제 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상하이와 타이페이, 오사카 등 각 단체가 매년 행사를 주관, 각국의 패키지디자인의 현재를 살펴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ASIA PACKAGE DESIGN의 제 6회째 대회는 중국 상하이의 소주에서 열려 새천년을 맞이하는 아시아 패키지디자인 강국의 면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ASIA PACKAGE DESIGN SANGHAI '99에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서는 39명의 참관단을 파견했는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살아숨쉬는 21세기,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공업도시인 상하이를 10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상하이 홍교공항(HINHG QIAO AIRPORT)에 도착한 일행은 상하이 도심지를 통과하는 톨게이트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코카콜라의 광고를 통해 공산주의 · 사회주의 체제인 중화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 OF CHINA)의 개방정책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으며 21세기 미래대국을 꿈꾸는 시내 곳곳의 우뚝 솟은 고층건물은 웅장함을, 고층건물 뒤편의 50년대 낡은 재래식 건물은 재개발의 물결 하에 그 자취를 서서히 감추고 있는 것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던 것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니었을 것이다.

상하이는 장강하구 남부, 황포강과 소주하 두강의 핵심점에 위치한 중국최대의 상공업도시로, 중앙직할시의 특별시로 인구는 약 1,317

만명, 16세기 무역항으로 발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65년에 문화대혁명의 포문을 열고, '4개국의 근대화' 추진의 중요한 정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이다.

현재 상하이는 10구 10현의 구성도시로, 1930년 상해임시정부가 세워져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도시이기도 하다.

한국 대표단 일행은 상하이 홍교공항에서 약 35분 거리에 있는 제 6회 'APD' 전시장에 전시 부스를 설치, 전시품을 전시한 후 상하이 중심가인 남경로동 WAITAN으로 이동했다.

WAITAN은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황포강 건너편에 보이는 송신탑을 위시한 주변의 경관은 21세기 아시아는 물론 세계 최대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의 미래를 감지할 수 있었다. 숙소인 상하이 양자강호텔로 돌아오는 도시고속화 도로 45km 구간을 2년 6개월만에 완공했다는 연변출신인 가이드의 안내설명은 승천하는 용의 용트림이 밤하늘에 가득한 서치나이트의 불빛과 조화를 이루어 마치 꿈꾸는 신천지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틀째 우리 일행은 제 6회 'APD' 전시장에 도착해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에서 'APD' 축하 팽파례를 시작으로 각 국의 전시품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다.

98년도 한국에서 전시된 작품과 비교하였을 때 패키지디자인의 변화는 아시아 4개국 패키지 디자인 수준이 점차적으로 각 나라 고유의 컬러를 갖추고 있으며 선진 일본과 견줄 때 수준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상하이 패키지디자인은 브랜드 요소에

충실하면서 칼라는 금적색과 황금색을 주조로 한 색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로고타입, 패턴 등이 조화를 이루어 일본패키지디자인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으며, 특히 도시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입간판의 색상인 황금색, 금적색 등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국인의 색상선호도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함께 전시되었던 99 상해대학생우수작품전을 살펴보면, 1등상을 수상한 '立人刀系列具包裝'은 국내 패스타공모전에 출품한 국내대학생 수준의 작품과 비슷한 비주얼을 표현했으나 지기구조 등의 3차원디자인요소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99 상하이 최고수상작품은 '和酒'는 Guo Zhong Jun과 Liu Xin Guo, 그리고 Hong Zhen Fang의 공동작품으로 디자인이 비교적 단순, 심플하며 브랜드를 돋보이려는 패턴과 배경의 일러스트는 미래를 지향하는 중국디자인의 현주소를



▲ 99 상하이 최고수상작 '和酒'

느낄 수 있었다.

그외 출품된 패키지디자인도 중국 고유의 색상을 위주로 한 디자인이 많았으나 식품, 제과류, 생활화학부분은 일본선진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유사성을 느낄 수도 있었다.

대만의 패키지디자인의 경우 패키지표면디자인의 요소를 보면 입체적이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표면레이아웃이 돋보였으며 특히 지기구조를 활용한 포장의 방법은 입체적인 표면디자인과의 조합이 잘 되어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내용물을 알리는 시각적 표현방법은 각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특히 대만은 감성적인 이미



▲ 대만의 'Moon Cake Box Series'



▲ 대만의 'Marry Happy Cake Gift Box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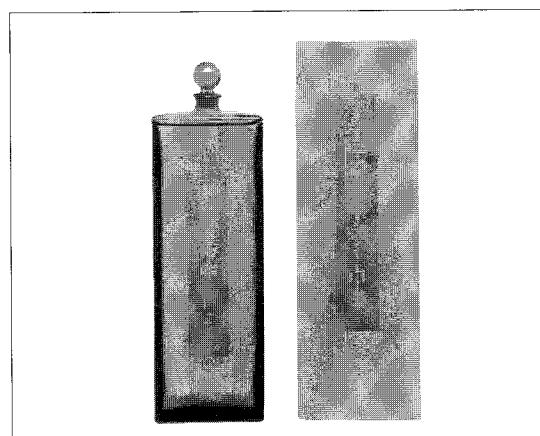
지에 호소하는 느낌이 매우 강했는데 이는 중소 기업 위주의 전문화된 디자인의 행태에서 오는 문화, 사회적인 환경의 요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Moon Cake Box Series', 'Marry Happy Cake Gift Box Series' 패키지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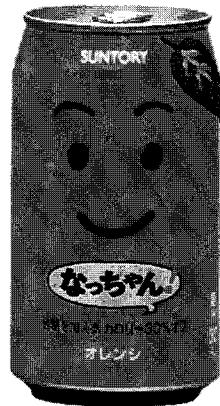
일본 Shiseido회사 'EDEERMINE(Revitalizing Essence)' 패키지는 일본최고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브랜드네임을 상형문자화하여 차별화된 시각아이덴티티를 표현하였다.

한편 금상을 받은 Suntory회사의 'Suntory Nacchan Orange Juice'는 웃는 모습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바탕오렌지색상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독창성과 차별성이 돋보이는 패키지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는 Suntory사의 'Suntory BEER캔'은 스틸캔의 질감과 특성을 잘 살린 디자인으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이 패키지의 경우 브랜드이미지를 주체로 배



▲ 일본최고상을 수상한 SHISEIDO의 'EUDERMINE'



▲ 금상을 수상한 'Suntory Nacchan Orange Juice'



▲ 백양영농조합법인의 '차씨네솔자'



▲ 은상을 수상한 'Suntory Beer 캔'



▲ 용기의 기능성이 강조된 'Lion Kirei Kirei Series'

경이미지는 밀 일러스트를 단순처리하여 시원한 청량감과 자연미를 강조했다.

'Lion Kirei Kirei Series'는 용기의 기능이 편

리할 뿐만 아니라 형태도 단순하여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비주얼 표현도 가족일러스트와 브랜드네임만을 사용하여 차별화가 잘 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출품된 디자인 중에서는 백양영농조합법인에서 개발된 '차씨네솔자', 두산의 '설화', 샘표식품선물세트, 영월더덕술 등 우리 고유의 이미지가 듬뿍 담긴 디자인이 많이 선을 보였으며 현재 국내디자인의 한 흐름인 브랜드파워를 지향하는 디자인이 출품돼 각광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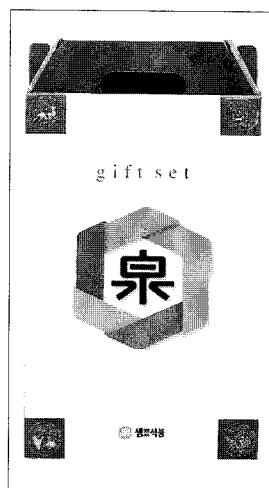
99 APD 오전 전시행사 후 오후에는 각 나라 대표들의 학술토론회가 있었으며 이후 친목연회 때에는 각 주최지역 대표의 인사말 및 여홍프로그램이 열렸다.

우리 일행은 ASIA PACKAGE DESIGN SHANHAI 99 참관의 아쉬움을 남기고 상하이 양자강호텔로 이동, 긴 하루의 여정을 무사히 끝마쳤다.

셋째 날 우리 일행은 전용버스를 타고 소주로 이동, 출정원, 한산사, 사자림, 18경 등을 둘러



▲ 한국적 이미지를 살린 두산의 '雪花(좌)' 와 '샘표식품선물세트(우)'



▲ '영월 더덕술'

보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중국의 과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각 관광지 주변에는 도자기, 견적물, 조개공예품, 한약재, 보석, 벼루 등 주요특산품이 즐비하였으며 상인들은 우리 일행에게 하나라도 더 물건을 판매하려고 거리행상을 하며 구매를 자극하기도 했다.

제품의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 일정금액이 정해지면 가격을 DC하여야만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우리 일행은 상인들과 한바탕 가격담판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소주관광을 끝내고 우리 일행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청사, 홍구공원 등을 둘러보았고 3일만에 된장, 김치, 불고기 등 전통한식으로 저녁식사를 했다.

상하이의 음식은 맵고 짠맛에 기름기가 많고 부드러우며 메뉴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식사 후 상하이의 가장 큰 변화가인 남경로에 있는 제일백화점, 우의상점 등을 둘러보았는데 영업시간은 8:00~21:00이며 점포 내 진열비

좋은 의류 - 도자기 - 공예품 - 잡화 - 식품 순으로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인 듯 했다.

식품매대는 포장이 되어있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등 2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포장이 되어있는 제품들 중에는 일본제품이 상당히 많이 눈에 들어왔고 농심의 '신라면'도 백화점식품매대에 진열되어 있었다.

중국상하이 중심가에 위치한 남경로거리는 5km 구간으로 거리에는 많은 인파로 붐볐으며 화려한 네온은 건너편에 보이는 WAITAN의 웅장함과 더불어 변화하는 개방주의의 용트림으로 21세기를 80여일 앞둔 지금 이순간 중국인들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다.

중국상하이의 불빛이 IMF 체제하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감회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언젠가 다시 한번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변화된 상하이는 어떤 모습일지 ~.

귀국하는 상하이홍교공항에서 시계를 1시간 전으로 돌려놓으면서 무한한 감회와 두려움, 그리고 긴장감이 역습해오던 그 느낌이 나만의 생각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ko]